

2009 대한민국



2009 대한민국 오리데이 페스티벌

● 2009 대한민국 오리데이 페스티벌 개막을 알리는 터치버튼 기념식



2009년 5월 2일 대한민국 오리데이 페스티벌

사진·글 | 편집부

매년 5월 2일은 오리 소비홍보 촉진을 위해 오리먹는 날로 지정, 오리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7돌을 맞는 오리데이 페스티벌은 이번에 5월 2일이 아닌 4월 30일로 앞당겨져 치러졌다.

2009년 5월 2일이 석가탄신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5월 초에 줄줄이 이어지는 휴일 및 기념일에 오리고기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화창한 초여름 날씨 속에서 농협중앙회 남성우 대표를 비롯해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신성범 국회의원, 농식품부 박현출 실장, 축단협 이승호 회장,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양봉협회 배경수 회장 등 축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올해 오리데이 페스티벌은 신촌역(경의선 기차역) 밀리오투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는데 평일날, 그것도

평소 유동인구가 다소 많지 않은 곳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부담감도 컸지만 그 어느때 보다는도 수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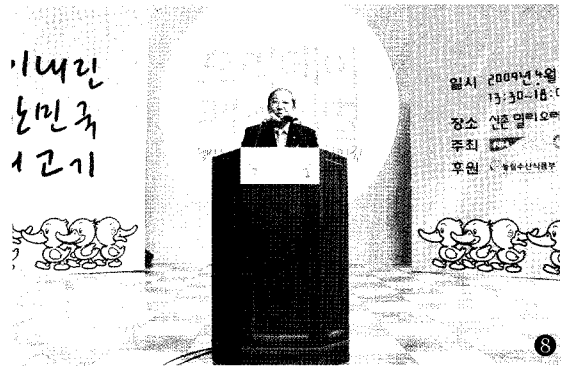


② 52가지 요리요리로 만든 대한민국 지도와 함께 기념촬영(좌측:이강현전무, 우측:이창호회장) ③ 동국대학교 백상응원단 공연 ④ 울산 모비스피버스 농구팀 우지원 선수의 오리데이 홍보대사 위촉식 ⑤ 오리고기 배식장면 ⑥ 우지원 선수의 사인타임 ⑦ 자리를 빛내주신 VIP초청인사 ⑧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의 개회사

인파가 모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오리고기 신세대 요리왕 경연 대회 및 5,200인분 오리고기 시식, 오리 캐릭터 네일 아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 평소 오리고기를 즐겨먹는다는 울산 모비스피버스 소속의 농구스타 우지원 선수가 오리고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1시간 가량의 사인회를 개최, 많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이 마련되었다.

식전 동국대학교 백상응원단의 힘찬 공연으로 오리데이 페스티벌의 열기가 더해졌고, “52가지 요리로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4m에 달하는 대한민국 모양의 전국 8도 요리요리 52선이 소개되는 비전 퍼포먼스와 함께 오리데이 페스티벌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개회식에서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는 “소비자들이 믿고 오리고기를 소비한다면 안전하고 품



EVENT in Story



⑨민능 엔터테이너 김흥국씨의 홍보대사 위촉 및 기념촬영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할 것"이라며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강조하였다. 본회 이창호 회장은 "지나해 AI 발생으로 힘든 기간을 잘 견뎌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더욱 밀착되고, 오리고기가 친숙하게 다가가 오리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국회의원은 "웰빙 오리고기를 먹고 힘내자."고 하였으며,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3년간 다양한 기능성 오리제품과 요리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오리 산업 발전을 기원했다. 이승호 축단협회장은 "지난 해 AI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오리고기가 사랑받는 먹거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건넸고, 강광파 소시모 상임이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소비자에게 오리고기를 알려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민능 연예인 김흥국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앞으로 열심히 오리를 들이대겠다.(?)"고 말해 사람들에게

게 큰 웃음을 주었다. 김흥국 씨는 직접 앞치마를 입고 행사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시식용 오리 고기를 배식하기도 하면서 오리데이 페스티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서, 연신 오리고기를 집어 먹는 재미난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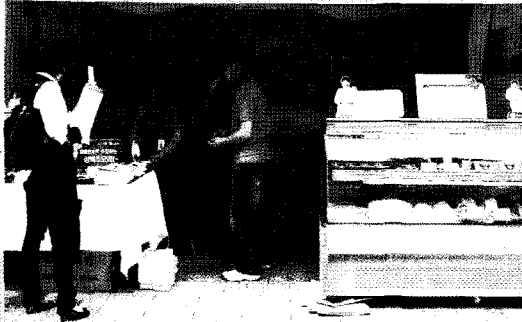
㉘ 오리브랜드 홍보관

2009 오리데이 페스티벌에 (주)코리아더커드, (주)화인코리아, (주)모란식품, (주)다영푸드 이렇게 네 업체가 참가하여 전시, 판매 및 시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코리아더커드는 훈제바베큐, 오리겹살, 오리 떡갈비 등을 전시하였고, 또한 시식 행사도 가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화인코리아는 웰빙본레스 바베큐, 슬라이스 바베큐, 오리 주물럭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 및 할인 판매하였다. 이날 준비한 수량이 금세 품절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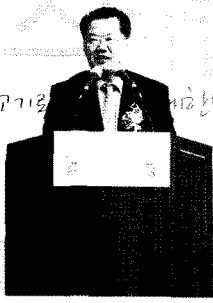
(주)모란식품은 셀텍 훈제 제품과 소시지, 셀텍 양념

10

(주) 다영푸드



EVEN (주) 화인코리아



11

오리 (주) 코리아더카드



10

(주) 모란식품



10 업체별 홍보부스 현장 11 신세대 오리요리왕의 입상작들 12 다양한 오리요리 시식

불고기 등을 전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주)다영푸드는 오리 코스 요리 전문점 「신토불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신토불이」코스 메뉴 중 하나를 실물모형으로 전시하고, 훈제 가공육 및 햄, 소시지 제품을 전시하였다.

88 시민과 함께 하는 오리데이 페스티벌

이번 행사는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 특히 5,200인분의 오리고기 시식행사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스타킹에 출연한 송지훈 요리사의 오리 철판 요리 시연, 오리 통구이, 오리 강정, 오리매콤떡볶음 등 10가지 메뉴를 선보였으며,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오리(52) 숫자를 이용한 오리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생일이나 나이, 이름(오씨와 이씨 커플), 핸드폰 번호 등에 '52'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고,





13 신세대 오리요리왕 선발대회 현장 14 송지훈 요리사의 오리요리소 15 행사에 모인 많은 시민들 16 귀여운 오리캐릭터를 내 손톱에 그대로! 오리네일아트

손톱에 귀여운 오리 캐릭터를 그려주는 네일아트는 여성분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 오리고기의 5가지 이로운 점(五利)과 오리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들을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되어 오리고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또한 부대 행사로 고등학생들이 직접 오리고기를 이용하여 요리경연을 펼치는 신세대 오리요리왕 선발대회가 개최되었다. 총 12팀의 참가하여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였는데 이 요리들은 맛, 대중성과 상품성을 기준으로 점수가 합산되어 오리고기 요리왕 1팀, 금상 1팀, 은상 3팀이 시상대에 올랐다. 요리왕으로 선발된 팀(원홍식, 19 · 신윤수, 19)은 오리 맛과 모양 모두 훌륭한 오리영양볼과 오리 버섯들깨찜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음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팀은 한 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운 오리 데리야기와 샐러드를 만든 팀(임고은, 17 · 김민정, 18)으로 사람들이 쉽게 따

라만들 수 있는 요리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을 받은 3팀은 각각 오리 단호박 매운찜과 로소오리고치, 오리버섯말이구이, 오리가슴살 크러스트와 오리 오렌지 슈제트를 만들었다.

이외에 (주)코리아더커드, (주)화인코리아, (주)다영푸드 3개 업체의 오리 제품을 시민들이 경매를 통해 시중가의 50~7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오리 경매 행사와 대학밴드의 공연, 오리 캐릭터와 포토 타임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로 시민과 하나 되는 뜻깊은 행사로 꾸러질 수 있었다.

☞ 2009 오리페스티벌 그 후...

가족 행사가 많은 5월, 오리고기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소비가 활기를 띄고 있다. 오리데이 행사 후에 많은 매체에서 오리데이 및 오리고기의 우수성이 소개되면서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에게 오리고기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신세대 오리왕 식사모습 18영예의대상과 기념촬영 19주요리아더카드의경매 제품 설명 20오리고기 경매 후 판매모습 21건국대학교 소비촉진 시식행사 현장

특히 올해 행사가 대학가 및 중·고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에서 열린 덕분에 오리 시식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였는데, 연신 “맛있다.”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오리고기가 단순히 보양식으로 중장년층에게 사랑받는 메뉴가 아닌 모든 연령층에서 골고루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리데이 페스티벌이 끝나고 수일 후 대학교 축제를 통해 오리고기 시식회를 하고 싶다는 반가운 전화도 여러 건 걸려왔다. 특히, 오리데이 행사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학교도 있었는데, 이는 오리고기가 20대 학생들에게도 점차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본회는 오리고기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및 시식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에게 오리고기가 지금보다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오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